

디지털자산

CLARITY Act = 치킨 게임, 과소평가된 통과 가능성



Crypto/Fintech 김세희 6195/ say@eugenefn.com

“ 이번 주 Update, 다음주 상원 표결 가능성

금일 상원 공화당이 윤리조항을 포함한 CLARITY Act 통합 수정안을 공개했으나 민주당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협상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 양당 모두 법안의 최종 통과를 원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기 타협보다 협상 우위를 유지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 현재 상원 본회의의 표결 직전 마지막 협상 단계로, 법안 통과에 핵심은 표 확보에 있음. 상원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상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53석) 만으로는 부족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공화당은 차주 표결 추진을 예고한 상황.

“ 표면적 쟁점은 윤리조항, 실질적 쟁점은 집행권

윤리 조항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등 연방 공직자들의 재임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이해상충을 제한하는 내용. 주요 쟁점은 트럼프 가족이 연루된 Meme 코인과 World Liberty Financial 참여 여부였으나 현재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은 해당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과 구조임. 공화당이 제시한 연방 법무부 중심의 단일 집행체계는 대통령 산하 기관이 대통령의 이해상충을 감독하는 문제를 지적해 법무장관 등 독립적 집행 주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먼저 핸들을 꺾지 않는 치킨 게임, 그래서 느리다

민주당은 현재 문안을 수용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공화당에 親크립토 입법 성과를 제공하게 됨. 반면, 협상을 지속할 경우 윤리조항, 집행권 등 핵심 조항의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음. 공화당 역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법안 통과는 앞당길 수 있으나, 수정안을 유지한 채 표결을 추진하면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넘기면서 금융혁신을 지연시킨다는 책임론 제기가 가능한 상황. 이는 양측 모두 최종 합의를 원하지만 먼저 양보하는 쪽이 정치적 협상력을 잃게 되는 '치킨 게임' 과 유사함. 따라서 단기 일정은 지연될 수 있으나, 협상이 결렬될 유인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최종 법제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함.

주간 주요 뉴스

트럼프, CLARITY Act 윤리조항 수용

트럼프가 CLARITY Act 의 윤리조항을 수용했다는 보도에 따라 Polymarket 의 연내 법안 통과 확률이 11%p 급등,

美 상원, 클레리티법안 표결 추진 및 윤리조항 합의안 협상 중

미국 상원 공화당이 CLARITY Act 윤리조항 합의안을 공개, 민주당은 추가 협상을 요구

DTCC, 토큰화 증권 실거래 완료

DTCC, 미국 주식, QQQ(지수), 미국채 등 실제 DTC 예탁자산 토큰화해 기관 간 거래 성공적으로 처리, 10월부터 본격 상용화 예고

로빈후드, 자체 체인 출시 후 3주 만에 급성장

로빈후드 체인 7 월 1 일 런칭 이후 토큰화 주식 AUM 2,000 만 달러 돌파

삼성전자, 삼성윌렛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예고

삼성전자가 삼성윌렛에 스테이블코인을 기본 기능으로 탑재하고 결제-리워드-디지털자산을 통합함으로써, 갤럭시 생태계를 모바일 기반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 공식화.

코빗, 디지털 X로 사명 변경-미래에셋 3.0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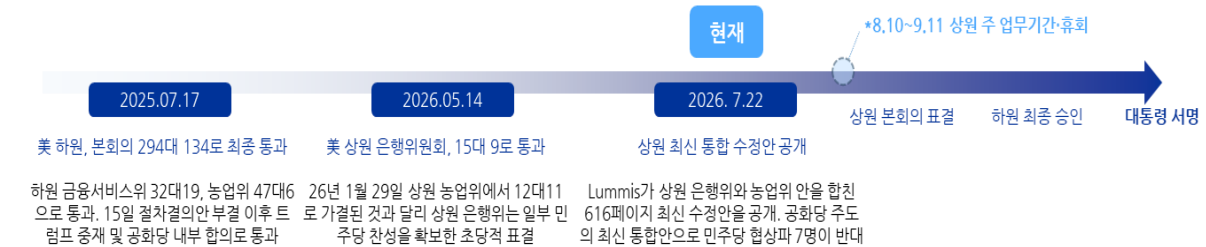
미래에셋은 97.15% 지분 인수한 코빗을 'Digital X'로 리브랜딩하고,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차세대 투자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함

한투증권-OKX-코인원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FIU가 지분 인수를 승인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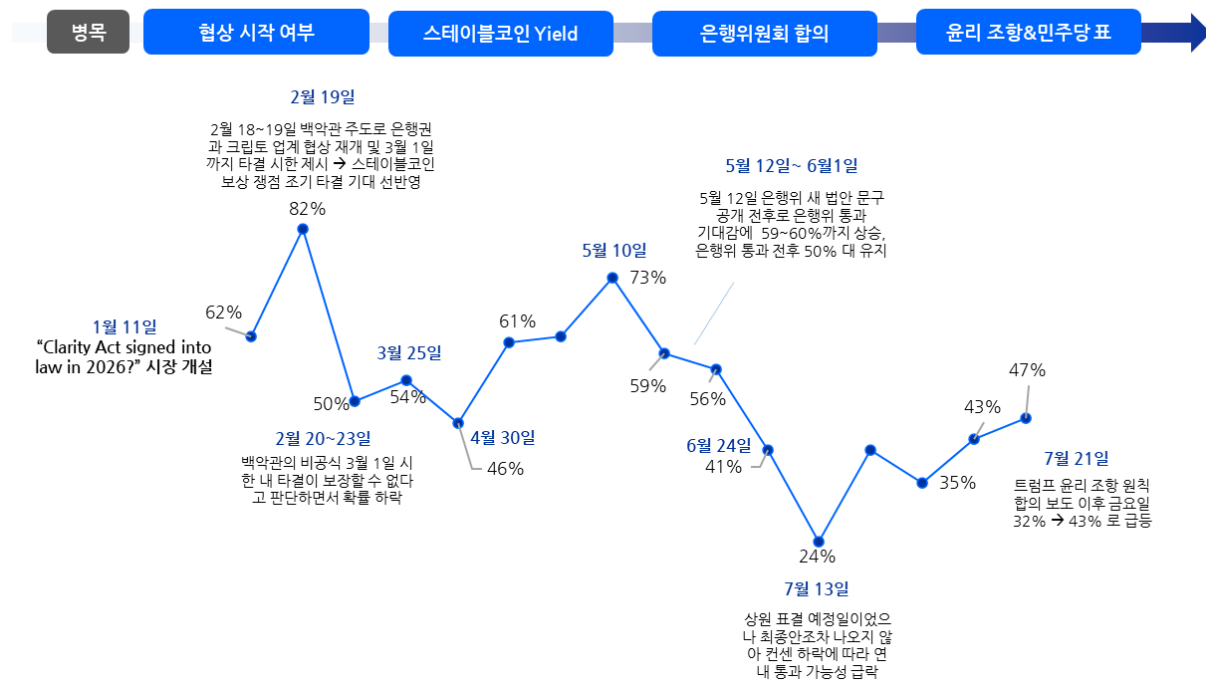
클래리티 법안 관련 주요 내용

CLARITY Act 입법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자료: 유진투자증권

Polymarket으로 보는 CLARITY Act 연내 법제화 가능성('CLARITY Act signed into law in 2025?' 시장 기준)



자료: 유진투자증권



Ethics Requirements

TOPLINE

No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has voluntarily agreed to self-imposed, substantive ethics limits like President Trump has. Senator Cynthia Lummis'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bans ALL federal officials,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issuing or sponsoring a digital asset for consideration, backed by real enforcement and real penalties. Clean government and pro-innovation policy are not opposites, and this bill proves it.

KEY ETHICS PROVISIONS INCLUDE:

- **A first-of-its-kind ban** — Prohibits any “covered individual,” defined as any public official or employee and their spouse, from issuing or sponsoring a digital asset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Vic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and Federal judges (Sec. 30101, new 5 U.S.C. § 13152).
- **Real enforcement, not empty promises** — Directs the Attorney General to bring civil enforcement actions against any covered individual who knowingly and willfully violates the ban, and against any digital asset intermediary that knowingly lists a violating token (Sec. 30101, new 5 U.S.C. § 13153).
- **Exchanges are on the hook** — A digital asset intermediary that knowingly lists a token issued or sponsored in violation of the ban faces a civil penalty of up to \$250,000 per violation, per day. Covered individuals who violate the ban must disgorge all profits and pay a penalty equal to 10 percent of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500,000.
- **Applies the same standard to everyone** — The ban covers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and their spouses government-wide, including th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and judges, applying one clean government standard from the top down—not a carve-out for anyone.
- **Fair transition, no bad-faith traps** — Officials with a pre-existing interest in a previously issued or sponsored digital asset come into compliance through a qualified blind trust or divestment under established ethics procedures, and are not held liable for the unauthorized acts of third parties they did not direct or coordinate with.
- **Modernized financial disclosure** — Updates federal ethics reporting law so digital assets sold for remuneration and worth more than \$1,000 must be disclosed, closing a gap in current requirements (Sec. 30102).
- **Effective one year from enactment, with a GAO check-in** — The ethics provisions take effect on the earlier of 360 days after enactment or 60 days after the final implementing rule, and requires a GAO report within 360 days recommending how to keep ethics law current as digital asset rules develop (Secs. 30103, 30104).
- **A voluntary standard, not a permanent one** — The ban sunsets on January 20, 2029, underscoring that this is a standard President Trump chose to hold himself to, not one Congress imposed on him (Sec. 30105).
- **Preserves every existing safeguard** — Nothing in the ethics provisions limits existing conflict-of-interest law, anti-fraud authority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and Securities Exchange Act, campaign finance law, o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First Amendment and Speech or Debate Clause.

History will remember this as the moment a president chose a higher standard than the law required of him and put America First.

BOTTOM LINE

This bill applies one ethics standard to everyone,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acks it up with real enforcement, real penalties, and a Department of Justice mandate to act. This is not talk. It is a president writing enforceable ethics rules into law and signing them himself. Digital asset innovation and clean government can go hand in hand, and the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proves it.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